

절세의 애국자, 만민의 은인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산같이 덧쌓이는 7월의 하루하루가 흐른다.

우리 조국과 인민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담보하는 승리의 역센 기를,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만고불멸의 업적은 세월의 흐름속에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쌓으신 업적과 더불어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